

與, 용혜인 사퇴로 김승원 방어 총력… 이번주 청문회 격돌

용혜인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직 수행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번주 5개 부처 청문회 예정

이번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런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주 만인 13일 후보자직에서 전격 자진 사퇴했다. 각종 의혹과 비례대표 의원직·장관직 겸직 논란이 이어진 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실상 결단을 요구하면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의 관심은 야권의 공세가 집중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쏠리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순으로 열린다.

이런 가운데 야권의 거센 공세를 받던 용혜인 후보자가 이날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 사퇴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사퇴 의사를 표했다.

용 후보자는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2차 개각에 따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주 만인 13일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사진은 김승원(왼쪽)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뉴스1

다. 그는 “지난 2주 동안, 후보자 검증은 포기한 채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와, 사실 확인은 뒷전으로 미루고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끝없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직접 해명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 측에서 사퇴 요청을 하면서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내

야 하는 역할인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앞서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을 듣고 있다”며 “국민의 여러 목소리와 판단은 그 자체로서 존중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론의 부정적인 기류 역시 용 후보자의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가중치보정을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에 따르면 용 후보자

가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합’ 응답이 51%로, ‘적합’ 응답 26%를 크게 웃돌았다.

용 후보자의 사퇴로 인사청문회 정국의 핵은 김승원 후보자가 된 모양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제넨셀 코로나 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주가 조작 관련 의혹,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익·급여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용 후보자가 사퇴한 이날에도 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는 계속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가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약처장에게 청탁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한 의원은 “식약처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고 하니까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내고 통화해 청탁을 전달했다”며 “단 2주 만에 승인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와 연관된 제약사 오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인재판사의 아들이 이후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점을 언급하며 채용과정에서의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승원 후보자는 공소 취소 안하겠다는 한마디를 못 한다”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안정적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소요 기간은 11일로, 코로나19 치료제 신속심사 프로그램에 따른 평균 10일보다 빠른 것도 아니었다”며 “제넨셀의 개발 물질과 관련해 중대한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위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경수 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지지율 38%’ 李, 추석 전 국민 앞에 선다

40·50대 부정평가, 긍정평가 앞서
장관 후보자 논란 등 직접 설명
17~18일쯤 대통령 기자회견 유력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급변동 등으로 하락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개각과 호르무즈 해협 기어 문제로 30%대를 기록했다. 임기가 3년 8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면 국정 동력이 완전히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이 대통령이 이번 주 중 현안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지난 8~10일 실시해 11일 발표, 전화면접방식)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를 기록했다. 전화면접 방식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민주진영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꼽히는 40·50대에서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6·3 지방선거 전 60%대였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선거 직후부터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족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등으로 지속 하락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 연임 개헌과 이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논란 등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호르무즈 해협 기어 문제가 불거지며 지지율은 더욱 하락했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다.

우선 지명 이후 ‘의원·장관 겸직’ 논란과 ‘가족정당’ 논란, ‘언더조직’ 논란 등으로 집중 공세를 받던 용혜인 후보자는 결국 이날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것 만으로는 분위기 반전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난제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파병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청와대나 정부 측 분위기다. 하지만 범여권에 속하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은 한·중양아시아 정상회의 등 정상외교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17~18일쯤이 유

력하다. 이 대통령 역시 최근 현안에 대해 국민 앞에서 설명할 의사가 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논란이나 호르무즈 해협 기어 방안뿐 아니라, 공소취소·연임 개헌 논란, 부동산 정책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 특유의 ‘솔직 화법’으로 직접 입장을 밝히면 논란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여론에서도 기자회견이 분위기를 전환해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여론관계자는 “이미 분위기가 굳어진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명한다고 해서 달라질지는 모르겠다”는 비판적인 전망을 내놨다.

/서예진 기자 syj@

민주당 “메가 10 기구, 메가 12로 확대”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김민석 대표 “성장·공존 병행”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취임 후 출범시킨 ‘메가 텐(10)’ 기구를 ‘메가 트웰브(12)’로 확대하고 경제 성장과 공동체 공존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임기 첫 1년의 과제였던 회복과 성장은 대통령님의 리더십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성장률, 수출, 증시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며 “이제, 1년 차가 지난 지금부터는 메가 성장의 추진과 함께 성장의 그늘 해소, 품격 있는 기본 사회 즉 품격 사회 추진 병행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마디로 성장과 공존의 병행 추진이다. 당은 정부의 메가 성장을 전력 지원하느 동시에 공동체의 공존을 위한 정책과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당장 현재 당이 출범시킨 ‘메가 텐’ 특별 기구를 ‘메가 트웰브’로 확대하고 2027 세계 청년대회 지원과 함께 AI 시대 격차 해소 품격 사회 민생 추진단, 약칭 AI 품격 민생단을 발족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메가 성장 특위와 함께 당의 양대 특별기구로서 성장과 공존을 병행하고 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특별히 우원식 전 국회의장께서 상임고문을 맡아서 실질적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은 용혜인 기본소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당 의원을 두고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동훈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불법 유출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정치검찰 종식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민생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물가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역대 최고 수준의 성수품 공급과 가격 할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을 시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추진 실적을 논의한다”며 “특히,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추가 재원까지 확보한 성수품 가격 할인 지원 사업에 작년 900억 원 배디 대폭 늘어난 1930억원이 투입된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